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II>, 관찰
(마 6:24~34)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두 번째, '관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오버랩 시킵니다.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가 주님에게 다 십자가 위에서 임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저주로부터 놓임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부자면 부자 건강이면 건강 형통이면 형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저주로부터 해방됐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원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햅니다.
오해 중의 오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나에게 임할 저주가 다 주님에게로 가서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과 심판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나는 죄의 힘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어느 지역의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그 추운 겨울에 몇 만 가구가 수돗물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수도관이 파열된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백 번이면 백 번, 천 번이면 천 번, 만 번이면 만 번,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가 온전히 죄의 힘에서 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에 나 자신을 오버랩 시키는 이 의식적인 작용이 믿음인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버랩 시키는 의식의 이 작용은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끊기면 안돼요, 끊기면 끊어진 수도 파이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죄악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 죄악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의식의 흐름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참여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의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깊이깊이 내 마음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참여하게 돼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이 하늘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이깊이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하나님과 친하게 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떤 열매가 뭐예요, 현실 속에서의 열매가. 돈이 10억 100억이 내 통장에 들어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확실한 보장으로 느껴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거예요. 돈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훨씬 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오버랩 되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참여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점점 더 깊이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실감나고 아버지로 확인이 자꾸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내 손에 현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내 앞날에 대한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의 두 번째 박자는 바로 관찰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 참여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바로 관찰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지무지한 축복입니다.
관찰의 축복, 하늘에 참여하는 축복이 십자가로 인한 삼박자 축복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박자는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그 죽은 세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관찰의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살펴봅니다.
관찰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칭돼서 비교가 되고 있는 한 인간의 그룹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내가 입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는 행동의 총칭이고 대표적인 위치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한다, 사실 의식주 즉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행동을 하는 행동의 대표 격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행동, 입을 것을 얻기 위한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대상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염려, 이 세상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

면 하늘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불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참하면서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에요. 과녁이 빗나간 것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늘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불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불참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본문 상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보라!"입니다. "보라!"
"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을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을 보라!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보라!" 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입고 사는 세상일에 참여하고 사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보라!" "백합화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입히시는가를 보라!" 관찰하라는 얘깁니다.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것을 보되,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이 뭡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세상에서 삶을 내가 영위하려고 하는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공중의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보라!"는 이야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라, 백합화를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입히시는지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너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지 말고, 삶이라는 것을 너희가 같이 참여해서 거들지 말고, 너희가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어떻게 입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인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주님과 죽었다는 이 의식이 늘 깨어 있어서 의식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내 의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은 하늘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깊이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깊이깊이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필요, 열망, 열정

이, 세상에 대한 열정과 욕망과 세상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소원의 마음이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자꾸자꾸 내 마음 속이 차게 됩니다. 이게 하늘에 참여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늘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자꾸 보게 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중에 이렇게 하늘에 참여한 자들이 세상을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참여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먹을 것 염려, 입을 것 염려, 키 크는 것 염려, 내일 일 염려, 이 네 가지 염려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지만 어디 염려가 이 뿐이겠습니까? 자식 염려, 노후 염려, 건강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에 참여하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선민들이 이 세상에 참여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과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대비되는 성경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 하 16장에 압살롬이 왕궁에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이름하는 사울 왕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극진하게 친했던 요나단의 자손인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 왕에게 모래를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며 욕을 해 댑니다. 피난 가는 것을 보고 이 때다 싶어가지고…
그럴 때 옆에 있던 다윗왕의 장군 아비새가 "어떻게 저 개가 내 주 왕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의 목을 베어 오리이까?" 하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 때 다윗이 한 말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하고 또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비새는 그 상황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굴욕을 느낍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굴욕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염려와 마찬가지로 분노도 수치심도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해서 내가 나를 멋지게 만들고, 내가 나를 높이려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 올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반드시 이런 분노와 굴욕과 모욕감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시켜서 저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참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깊이깊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와 있을 때 지금 굴욕적인 자기 자신의 상황조차도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는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렇게 저주

하고 있구나. 내가 제 3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을 중심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3자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그런데 아비새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또 이런 예가 있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한 백성들을 모세가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놓여 져 있는 이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저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해요, 저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이 세상에 참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또 두려움과 원망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 250만 명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불참하라는 얘깁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너희가 처한 이 위기상황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찰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가 보라,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시는가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게 될 것인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라, 그리고 오늘 이 홍해 바다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너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가 보라!"
내게 닥친 문젠데 왜 제 3자의 입장이 됩니까? 하늘에 참여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몸이 처한 위기상황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마치 종로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내 몸은 영등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깊이깊이 내 마음이 잠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며 있을 때 내 몸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제 3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이에게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던 다윗은 힘 안들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에서 그냥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섬멸시키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12명 제자 중에 끼어들어 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마치 당신을 배반할 자가 옆에 있는 그 상황을 제 3자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당신이 빌라도에게 심판 받는 상황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관찰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거꾸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던 자가 십자가를 붙잡음을 통하여 세상에 불참하고 하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거꾸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관찰하게 될 때, 내 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형통할까, 이런 식으로 염려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위엣 것을 찾으라는 얘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무조건 하고 하늘로 배불러라. 하늘로 배부른 자만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배가 고픈 게 돈 때문이 아니로구나! 하늘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직을 잘하는 것, 당회원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 어디 먼 곳에 선교활동을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도회장을 하건 당회원이 되건 선교활동을 하건 그건 다 나중의 일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늘로 배부르라는 얘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는데, 제일 먼저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서 실현된다구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왜 정의가 실현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는 순간만 생기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용솟음 쳐 올라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참여한다는 얘긴데, 하늘에 참여하기 위해선 세상에 불참해야 됩니다.

세상에 불참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자식 키우려고 하고 내가 건강을 보살피려고 할 때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세상의 삶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유일한 의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예요, 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게서 나오는 모

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 의도 뜻이 다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잡는 의식이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게서 생각이 나오고 의지가 표현되고 감정이 표출되는데, 이게 다 죄악입니다. 다 죄악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로 배부르고 하늘로 배부르면 어~ 세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관찰할 때, 반드시 승리로 끝나고 반드시 성취로 끝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돈 없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보면 되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되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 걸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걸 내가 보세요. 내가 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입으려 하지 말고,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왜 섬겨요? 이 세상에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옷 사고 먹을 것 사고, 성공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래서 돈 벌려고 이 세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관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찰만. 왜 관찰을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를 갖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오버랩 되는 동안에 이 세상을 보는 거니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늘이 고파서 ,
밥 짓는 어머니가 배고파서 간식이나 다른 빵쪼가리 같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자식을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짓는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배가 고프니까 하늘이 고프니까 자꾸 우리는 돈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참여해서 옷이라도 멋진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명품백이 아니면 도대체 허전해서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다 하늘이 고파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늘에 참여하고 세상은 관찰합시다. 이게 십자가의 축복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 이외에 이 세상을 다 관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이까?' 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 나라가

식민지하에 있다고 하는 너희 몸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을까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로 배부르기 위해 하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늘에 참여함과 세상을 관찰함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없이 내가 오버랩 되고 있다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라는 의식이 흐름을 형성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요, 두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머지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내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대한 나의 의식이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십자가에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서 상실하지 않게 해 주심으로 하늘에 참여하게 하시고 불참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하늘에 참여한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 감사로 일관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